

제12장 죽음 앞의 인간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3

♣ 스코트 니어링, 죽음 앞에서의 위엄

미국의 산업주의 체제와 당대 문화의 폭력성에 끊임없이 저항했던 스코트 니어링. 그의 마지막 순간은 평온하고도 위엄을 갖춘 품격 높은 죽음의 한 전형이었다. 평소 “죽음의 방식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반영” 이라고 말했던 그는 더 이상 자기 몫의 짐을 운반할 수 없고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죽음준비를 시작했다. 스코트 니어링은 1963년에 <주위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처음 썼고 1982년 이 글을 다시 수정했다.

나는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느끼고 싶다. 어떤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 나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으므로, 기쁘게 또 희망찬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 혹은 깨어남이다.(후략)

이상과 같이 이어지는 글의 전문은 이 장(章) 앞머리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 침상에서 평온하게 누워 지내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이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고 잠을 자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을 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해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머물고 싶다.”

죽기 한 달 전, 또 100살 되기 한 달 전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맑은 의식을 지니고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그는 신중하게 여행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했다. 음식 섭취를 중단함으로써 서서히, 품위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육신의 옷을 벗고자 했다. 그는 이 무렵 “기쁘게 살았으니 기쁘게 죽으리라.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떠난다” 라는 말을 즐겨했다. 생명이 기능을 다한 육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나는 방식으로 그는 죽음을 준비했다. 동물들이 흔히 선택하는 죽음의 방식, 즉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그의 아내 헬렌은 스코트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1983년 8월 24일 아침, 헬렌은 스코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작은 소리로 헬렌은 아메리카 토착민의 노래를 읊조렸다.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워라. 네 마음에 여름날의 따뜻함을 간직해라. 그러면 위대한 혼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헬렌이 또 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무엇이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가도록 그냥 두세요. 썰물처럼 흘러가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 했구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세요. 빛으로 나아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는 자기 육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마치 마른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었다. 그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하듯이 “좋-아” 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떠나갔다. 헬렌은 스코트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갔음을 느꼈다. 미국에서 ‘현대의 소로우’로 평가되는 스코트 니어링의 삶과 죽음은 ‘서양의 장자’라고 일컬을 만큼 노동의 가치와 인생의 달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었다.

2. 죽어가는 사람의 웃음

사람들은 흔히 유머와 웃음은 죽음과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웃음이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살고 있는 것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 지으며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각국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들은 불치병 환자들을 다루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과 유머로 임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환자와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는 웃음과 유머로 흘러넘친다. 말기환자에게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환자들에게 마음 깊은 배려로 봉사한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봉사자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유머로 가득 찬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만일 호스피스 봉사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봉사에 임한다면, 말기환자들은 당연히 얼굴을 돌릴 것이다. 자기 삶을 밝게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호스피스 봉사를 자원할 까닭도 없다. 자기 삶을 밝게 영위하는 사람, 또 자신의 죽음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뜻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당사자도, 죽음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의 흔들림이 한층 심해지게 마련이다.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는 누구든 긴장을 감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억지 웃음이 아닌 자연스런 미소로 죽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충분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과 확고한 생사관, 철저한 준비 자세, 여유 있고 평온한 마음가짐이 전제될 때 우리는 웃으며 죽을 수 있다.

3. 웃음의 치료 효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유머와 웃음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웃음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유머와 웃음은 죽음이 불필요하게 던져주는 두려움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시한부 질병을 앓는 환자는 더없이 큰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평상시에도 의사 앞에만 서면 혈압이 상승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만일 의료관계자가 유머로 충만하고 편안한 태도로 환자를 대한다면 환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워싱턴의 휴머니스트’ 로 불리며 미국인들에게 웃음전도사로 활약했던 유머 칼럼리스트 아트 부크월드는, 죽는 순간까지 유머를 잃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죽는 것이 의미 있는 죽음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2007년 1월 18일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에 올라온 칼럼니스트 아트 부크월드의 동영상 부고기사. 날카로운 풍자가 가득한 칼럼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크월드는 본인이 직접 (미리 제작된) 동영상 비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유머 칼럼니스트인 아트 부크월드가 17일 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인 신장병으로 타계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향년 81세.

‘워싱턴의 휴머니스트’ 로도 불려온 그는 40여 년 넘게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 계층을 풍자한 칼럼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의 칼럼은 전 세계 500여 개 신문에 실렸다. 그는 1982년 논평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당뇨병이 악화돼 한쪽 다리를 절단한 그는 신장투석도 거부한 채 칼럼에서 워싱턴의 호스피스 시설에서 죽음을 맞는 과정을 특유의 유머러스한 필체로 묘사하며 여유있는 마음자세와 의연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여기에선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밀크셰이크, 햄버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좋다. 내 생애 최고의 시기”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부크월드는 1월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의 영상 인터뷰에서 “신장투석을 중단했을 당시에는 의사가 2, 3주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 계속 살아남았다” 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생존기간이 길어지자 지난해 다음과 같은 칼럼을 쓰기도 했다. “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던 일이 많이 생겼다. 아침마다 면도도 해야 하고, 휴대전화도 괜찮은 신제품을 추가 구입하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다. 장례 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다. 또 하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호스피스 시설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2006년 11월 자신의 투병 생활을 담은 『안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라는 책을 펴냈다.

유머와 웃음은 분노와 적의를 완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의식하다 보면, 대다수 환자는 “하필이면 왜 내가……” 하는 식의 격렬한 분노와 적의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감정을 곁에서 보살피는 사람에게 쏟아 붓거나, 때로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직접 적의를 표출하는 환자도 있다. 만일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가족이나 의료관계자 역시 힘이 덜 들 것이다. 보살피는 사람도 환자의 태도에 동요하지 말고 따뜻한 유머로 대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의 분노와 적의를 진정시키는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열한 명의 아들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91살의 할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온가족이 다함께 모여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자 할머니는 눈을 번쩍 뜨고서 “나를 위해 기도를 했구나. 고맙다. 그런데 위스키 한잔 마시고 싶은데”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위스키 한 잔을 가져오자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는 “미지근하니까 얼음 좀 넣어줘” 라고 말하여 또 놀랐다. 겨우 두 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녀가 얼음마저 요구하니 모두 충격을 받았다. 얼음을 넣어주자 할머니는 “맛있다” 고 말하면서 전부 마셔버렸다. 이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유 있게 담배 한 대 피우더니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 뒤 “천국에서 만나자, 안녕” 이라고 말하고는 옆으로 누워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그때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 한 명도 없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보여주었던 밝은 유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답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할머니는 평생 위스키나 담배를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가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가 죽기 직전 위스키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이유는 없었다. 그는 91살까지 장수하면서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자신이 죽으면 자녀와 손자를 슬프게 할 게 아니라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죽음에 직면한 환자는 어쨌든 수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낙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져도 정신적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다. 생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더욱 높은 차원의 자기실현을 이루며 마음껏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의 사례는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 분들 중에는 특히 평소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유머와 웃음은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존엄한 죽음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이며, 유머와 웃음은 그런 인간적 성취로 다가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아홉 번째 반응, 밝은 죽음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홉 가지 반응 가운데 첫 번째 반응에서부터 다섯 번째 반응까지는 마지막

순간에 임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다. 여섯 번째 반응 ‘수용’ 에서부터는 이런 태도가 바뀌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순응하면서 죽음으로부터 무언가 긍정적인이고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수용, 희망, 마음의 여유를 거쳐 아홉 번째 반응 ‘밝은 죽음’ 에 이르러 마침표를 찍는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의 이해를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 인간 생명의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빛 앞에서 극복되어야 하고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둘째,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정신적으로 한 개체가 종말에 이르고 해체되는 중성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엄연한 생명에 대한 횡포이자 공격, 죽음의 독화살, 쏘는 가시로서 매우 부정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다. 죽음의 치명성 속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깊이 느끼게 된다. 이렇듯 기독교에서 죽음은 어둠과 그림자처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또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따라 죽음을 긍정적인 의미로, 즉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계기로 인식하기도 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종말이 아닌 인간 삶의 완성이며 결실이요, 보다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삶의 마지막 완성이다. 이는 하느님의 인간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와 이를 극복한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최종적인 열매이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본다.

한편 불교의 경우, 붓다의 현신(顯身) 중에 아미타불은 ‘한량없는 광명(無量光)’ 의 뜻으로 풀이된다. ‘비로자나(vairocana)’ 라는 명호 역시 ‘광명편조(光明遍照)’ 즉 지혜의 빛으로 삼라만상을 널리 비춘다는 뜻을 갖고 있다. 붓다의 존재는 한마디로 무량한 광명 그 자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곧 광명을 깨닫는다는 말이다. 광명은 또한 마음의 지혜, 반야지혜를 가리킨다. 저 하늘의 태양이 만물을 비추고 만물의 진상을 드러내듯이, 진리도 광명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미혹을 헤쳐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이렇듯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빛을 발하도록 하는 데 그 종교적 목표가 있다. 무명의 어두운 껍질을 깨뜨려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지혜광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불교는 생사불이(生死不二) 즉 삶과 죽음 사이에 조금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교의 가르침은 죽음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붓다는 삶과 죽음의 어둠을 밝히는 광명 그 자체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육신을 지닌 인간보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의 존재가 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말도 있다. 붓다는 우리에게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마저도 광명으로 밝히라고 가르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아홉 가지 반응 가운데 처음 다섯 가지 반응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의 어둠 때문이다. 무명의 어둠으로 인해 죽음을 밝은 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수용에서부

터 여덟 번째 마음의 여유까지는 그 어둠이 걷히기 시작함을 뜻한다. 마지막 아홉 번째 반응 ‘밝은 죽음’ 에 이르러야 우리에게는 비로소 지혜 광명이 저 하늘의 태양처럼 우뚝 솟아 무명의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 있다.

사실 여섯 번째 수용 단계에서부터 여덟 번째 마음의 여유 단계까지는 애써 정진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반응 ‘밝은 죽음’ 의 단계는 그렇지 않다. 깨달음의 빛에 이르기가 쉬운 일이 아니듯 ‘밝은 죽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듯이 ‘밝은 죽음’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죽음을 밝음 혹은 광명과 연결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문제를 추적하다보면 궁극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명 혹은 빛의 존재이다. 불교 경전이나 성경에 나오는 광명이나 빛의 존재, 선사들이 남긴 계승, 『티베트 사자의 서』에 자주 제시되는 광명, 그리고 현대 사회에 주목받고 있는 임사 체험자들이 전하는 빛의 존재 등등 숱한 증거들이 있다. 특히 예로부터 솔하게 전해지고 있는 영적 스승들의 놀라운 죽음의 모습은 우리가 죽음에 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모범답안이다.

1. 오방(五放) 최홍종의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최홍종(1880~1966) 목사는 젊은 시절 ‘망치’란 이름으로 장터와 뒷골목을 주름잡던 주먹이었다.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엄한 계모 아래서 살던 그는 열아홉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사람을 개 패듯 패고 다녔다. 그 뒤 마음을 잡은 최홍종은 광주 양림동에서 선교의사 포사이트의 조수로 일했다. 포사이트는 선교사들조차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고 존경했던 인물이다. 당시엔 나환자 몸에 닿기만 해도 나병에 걸린다고 나환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던 시대였다. 포사이트는 환자의 거드랑이를 양손으로 부축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 환자가 한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쳐버렸다. 그러자 포사이트는 “지팡이를 집어주라”고 했다. 최홍종은 고름과 핏물이 잔뜩 묻은 지팡이를 집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가 용기를 내 지팡이를 집어 들어 나환자에게 건네주자 다 문드러진 나환자의 얼굴에서 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순간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밀려왔다. 그가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뜻하지 않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것만도 기막힌 일인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웃들로부터 온통 돌팔매질만을 받아 가슴마저 찢겨지는 나환자들의 기막힌 설움이 바로 그의 설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뒤 최홍종은 자신의 땅 1000평에 한국 최초의 나환자 수용시설인 광주나병원을 설립해 나환자들을 보살폈다. 그로 인해 광주에 나환자들이 많아지자 광주시민들은 “광주를 문둥이촌으로 만들려느냐”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수 애양원의 전신인 나환자촌으로 나환자들과 함께 이주해 함께 살았다. 그는 한국나환자근절협회를 창설해 나환자들을 돌보았으나 여전히 갈 곳 없는 나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가 단행한 것이 일제 때 큰 화제를 불러온 나환자행진이다. 그는 나환자 수백 명과 함께 무려 열하루에 걸쳐 광주에서 서울까지 행진해 총독에게 전남 고흥 소록도 나환자촌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날 소록

도 나환자갱생원이 설립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3·1 운동의 주동자의 한명으로 1년 4개월의 옥고를 치렀던 최홍중은 전라도의 시민운동, 청년운동의 대부이기도 했고 광주지역 초기 교회들을 이끌어 광주를 기독교의 메카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좌·우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갈라져 싸움을 벌일 때도 뒷골목 두목 출신의 카리스마와 넓은 포용력을 지닌 그 앞에선 모두 하나가 되었다. 나환자들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그는 1935년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친구에게 부탁해 거세를 해버린 뒤 ‘다섯 가지 집착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오방정(五放亭)을 무등산에 지어 홀로 살았다. 그가 아호로 삼기도 한 ‘오방’이란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물질에 예속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관심과 무책임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으로 신념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방 뒤 김구는 오방정에 일주일을 머물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고 호소했으나 그가 끝내 거부하자 ‘화광동진’ (和光同塵, 지혜의 빛을 조화롭게 하여 세상 사람들의 번뇌와 함께 한다)이란 휘호를 남기고 떠났다.

오방은 미국의 스코트 니어링(1883-1983)이 그랬듯이 1965년 말부터 곡기를 줄이기 시작했고, 1966년 2월 10일부터 단식기도에 들어가 곡식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서서히 임종을 준비해 100일째 되던 날 5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오방보다 3년 늦게 태어난 스코트 니어링은 오방보다 17년을 더 살았다. 1966년 2월 말부터 3주간 할아버지 옆에서 지켜본 손자 최협 교수에 따르면 곡기를 끊은 오방은 몹시 야위어갔으나 얼굴은 해맑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한다. “나는 매우 충만한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오방은 모든 것에 초연해 담담하고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므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12월 30일 작성한 유언장에서 “죽는 날이 곧 생일로 현재를 영원한 미래로 연결하는 참 생일” 이라고 했다.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충만한 사람을 살았다는 증거였다. 그의 관 뒤엔 수백 명의 나환자와 걸인이 뒤따르며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덩굴며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그를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성자’ 라고 불렀다.

2. 수월 스님의 생사를 초월한 죽음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생들을 봉양했던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은 한마디 설법도 한 줄 문장도 남기지 않았지만, 언제나 주위에는 선열(禪悅)이 넘치고 법열(法悅)로 가득 차서 스님이든 일반인이든 심지어 호랑이를 비롯한 동물들까지도 환희에 넘쳤다.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던 삶의 행적은 진리의 빛 그 자체였고, 지혜와 자비의 본디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 삶과 죽음이었다.

1928년 무진년 여름, 일흔넷이 되던 해 여름 결제를 며칠 앞두고 수월은 나무하기를 마쳤다. 해제 다음 날 점심 공양을 끝내고 대중들과 함께 찬 한 잔 마신 뒤 “나, 개울에 가서 몸 좀 씻을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 개울가로 빨래하러 간 스님이 부리나케 달려와 숨넘어가는 소리로 수월이 개울가에 앉아 열반에 들었다고 말했다. 목욕을 마친 수월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얇은 맨몸으로 개울가 바위 위에 단정히 앉은 자세로 입적했다. 옆에는 잘 접어서 갠 바지저고리와 새로 삼은 짚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연스런 결가부좌, 곧게 쪽 편 허리와 가슴, 곧추 세운 머리, 살짝 감은 듯한 눈, 야물게 다문 두 입술, 배꼽 아래 함께 포개져 있는 두 손, 닿을 듯 말 듯 붙어 있는 두 엄지손가락, 누가 보아도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흡사 더운 여름날 매미소리를 들으면서 개울물에 몸을 씻은 노스님이 잠시 바위 위에 앉아 삼매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수월은 육신의 옷을 벗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닌 죽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불행한 마지막 모습과 비교해보면, 수월의 이런 당당한 죽음은 하늘과 땅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죽음이 가능한지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역으로 수월의 자리에서 보면, 사람들의 불행한 죽음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수월은 잠시 인간의 옷을 입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지내다가 허물 벗듯이 육신의 옷을 벗고 가볍게 길을 떠났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건만, 죽음의 모습만큼 차이가 나는 것도 없다. 죽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준다는 말이 있듯이 수월은 자신의 본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수월이 입적한 뒤 밤마다 호랑이들이 떼를 지어 울었고 빛기둥은 밤마다 하늘 높이 치솟았다.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 건강하지 못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수월의 삶과 죽음에서 한 줄기 광명, 결코 끊이지 않는 맑은 감로수 법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원로 시인 이형기 씨는 시 〈낙화〉를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16세 되던 1949년 《문예》를 통해 등단했던 고인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시의 빛에 걸렸다”는 말을 자주 했다. 11년 전 뇌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 구술 시작을 했을 정도로 시혼을 불살랐다. 사람마다 죽어가는 모습이 다르지만, 원로시인의 〈낙화〉는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 죽음에 담긴 철학적 의미, 죽음 이해의 다양성과 중요성,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가,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이란 어떤 죽음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낙화〉를 통해서, 죽음에 임하여 여행을 떠나는 자기 자신의 심정을 남김없이 토로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쓰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죽어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절망, 두려움, 부정, 분노, 슬픔, 삶의 마무리, 수용 등의 과정은 누구나 똑같이 밟게 되는 단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저마다 다르게 죽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겐 위의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선 두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관찰되기도 한다. 심지어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다섯 번째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절망이나 두려움(첫 번째 반응)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음이라는 절대명제 앞에서 인간이 지니는 다양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아홉 가지 반응 가운데 첫 번째에 근접할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처음 세 가지 반응은 성숙되지 못한 죽음이다. 여섯 번째 ‘수용’의 반응은 이전의 반응과 크게 다르다. 아홉 번째 ‘밝은 죽음’에 근접할수록 보다 성숙한 죽음, 존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삶과 건강하지 못한 삶이 구별되듯이, 건강한 죽음과 건강하지 못한 죽음, 행복한 죽음과 행복하지 못한 죽음도 분명히 구별된다. 삶을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밝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해야 하는지, 어둡고 마지못한 표정으로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불행한 죽음을 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두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다.

사람마다 죽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 차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마치 불행한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죽어도 되는 것인가. 죽음의 방식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이 보여주는 죽음의 방식에는 그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죽어가는 모습이 천양지차인 것은 각자가 이 삶에서 살았던 모습이 그만큼 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취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죽음 이해와 그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떤 직업

을 택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수시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는 질문을 자신 앞에 던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 등을 모색하는 ‘삶의 양(Quantity Of Life)’ 과 관계되는 질문이다. 반면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삶과 죽음의 의미, 영혼, 가치, 삶의 보람, 죽음 방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삶의 질’ (Quality Of Life)과 ‘죽음의 질’ (Quality Of Death)에 관계되는 물음이다. 삶의 양적인 차원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 의미 있는 듯이 보일 뿐 영혼의 성장과는 별 관련이 없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질’ 과 관계되는 문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 모두에 통용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만 생각했을 뿐,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는 생각해본 일이 없다. 우리 삶은 죽음에 의해 마감되므로, 웰빙은 웰다잉에 의해 완성된다. 잘 죽지 못한 삶은 결코 웰빙일 수 없다. 이제,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으로 살 것인지 물어볼 때가 되었다. 죽음을 코앞에 맞이했을 때는 이미 늦다. 자신에게 언제든 지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물어보아야 한다.